



## 한국 내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생 난민 신청에 중국공산당이 개입·간섭한 조사 보고

2013년 12월 3일

### 목록 머리말

#### 가. 중공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생들의 한국 난민 신청 간섭

1. 저우융캉이 한국 법무부 장관 2 주 회견 뒤, 법무부는 단번에 파룬궁수련생 21 명의 난민신청 이의 신청 기각
2. 리창춘 방한 전후, 파룬궁수련생 43 명 난민신청 및 64 건 이의신청기각, 1 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

#### 나. 한국, 중공의 기만과 거짓 선전을 파룬궁수련생 난민문제의 기본 근거로 삼음

1. 죄 뒤집어씌워 모함
2. 세뇌 전향
3. 파룬궁 비방하는 전문직 허위 민간 조직

#### 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박해, 한국에까지

1. 난민 신청 파룬궁수련생, 은밀히 중국에 강제 송환됨
2. 난민 인정 못 받은 파룬궁수련생, 시시각각 체포와 구금, 송환위험까지
3. 국제사회, 중공이 한국정부에 압력 가함을 규탄, 한국에 유엔 공약 이행 호소

### 맺는말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 한국에서 강제 송환된 나에게 중공이 가한 박해와 거짓 선전

첨부파일 2 : 내가 한국에서 강제송환 당한 후 중공에 박해당한 사실

첨부파일 3 : 한국정부로부터 비밀리에 강제로 송환된 파룬궁수련생이 직접 겪은 경력

사례 ① 이 씨(여성)의 녹음 기록

사례 ② 왕 씨(여성)의 녹음 기록

첨부파일 4 : 미국 국회의원 23 명이 이명박 대통령에 올린 연명 서신

첨부파일 5 : 유럽 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Edward McMillian-Scott)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 서신

### 머리말

2002년 이후 중국 국적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약 100 명이 한국법무부에 난민신청을 제출했으나 2013년 11월까지 한 사람도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법원에 상소했지만 2 명이 승소한 외 모두가 패소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사이에 난민 신청을 한 파룬궁수련생중 10 명이 강제로 중국에 송환됐습니다. 그 중 2 명이 중국을 재탈출. 자신이 중국에 송환된 후 받은 박해 상황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파룬궁수련생 56 명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해 불법 체류하는 실정입니다.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 (이하 '국제추적조사')는 파룬궁수련생의 한국 난민 신청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파룬궁 난민 문제에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직접 개입, 한국 정부에 내정 간섭을 실시했습니다

## 가. 중공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생들의 한국 난민 신청 간섭

### 1. 저우융강이 한국 법무부 장관 2 주 회견 뒤, 법무부는 단번에 파룬궁수련생 21 명의 난민신청 이의신청 기각

2006 년 3 월 16 일 천정배 한국 법무부장관은 중국공안부의 요청을 받고 방중 당시 공안부 부장이었던 저우융강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우융강은 “국제 범죄와 출입국관리, 대형 활동 안전보위 등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출했습니다. [1]. 천 장관은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한국 법무부는 법 집행에서 중국공안부와 협력해 끊임없이 공고해지고 발전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종결 후 쌍방은 공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의 회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

당시 중국공안부 부장 저우융강은 파룬궁 탄압 전문 기구인 중공 '610 사무실' 부주임과 정법위원회 서기를 겸직하면서 전국의 공안·검찰·사법 계통을 책임 지휘, 파룬궁을 박해했습니다. [3]

2006 년 3 월 16 일 베이징에서 저우융강(周永康)과 천정배 한국 법무부 장관이 2 주간 회견한 직후인 3 월 31 일, 법무부는 파룬궁수련생 21 명의 난민신청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9 월 29 일까지 11 명의 이의신청을 추가로 기각했습니다.

### 2. 리창춘 방한 전후, 파룬궁수련생 43 명 난민 신청 및 64 건 이의신청 기각, 1 명을 중국 으로 강제 송환

2009 년 4 월 초 당시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창춘(李長春)이 방한했습니다. 4 월 6 일 리창춘은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4] 한승수 [5] 국무총리를 만났고 한·중 우호단체 책임자를 만나 한·중 우호 관계, 양국 관계 사전 방지와 영향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6]

중공중앙정치국은 파룬궁을 5 대 적대 세력의 하나로 열거했습니다.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창춘은 당, 정, 국가 기관 부부장급 회의에서 이와 관련 전문적인 전달과 배치를 했습니다. [7]

리창춘 방한 보름 전인 2009 년 3 월 18 일, 법무부는 단번에 파룬궁수련생 43 명의 난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기에 난민신청을 제출했으며 연도는 대부분 2005 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다 4 년 뒤 같은 날짜, 즉 리창춘 방한 직전에 모두 법무부의 기각을 받았습니다. 리창춘 방한 1 개월 뒤인 4 월 30 일, 법무부는 또다시 한 번에 파룬궁수련생 41 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잇따라 4 번에 걸쳐 23 명 수련생의 이의신청을 기각, 총 64 명을 기각했습니다.

2002 년부터 한국 법무부에 신청한 파룬궁수련생 100 명가량의 난민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파룬궁수련생은 한국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지만 역시 모두 한국 법무부의 기각을 받았습니다.,

2009 년 2 월 26 일 난민신청한 파룬궁수련생 32 명의 상소가 기각됐습니다. 이들에게 송환 위험이 닥쳤고, 그 해 3 월부터 '파룬궁 난민 강제 송환 대책 위원회'가 긴급 서명 활동을 발기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11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ttp://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명이 서명했고, 130 개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일률적으로 서명에 동의, 한국정부에 난민신청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강제 송환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리창춘 방한 3 개월 뒤인 2009 년 7 월 1 일 한국에 난민신청한 파룬궁수련생 오기룡 씨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오기룡 씨는 중국에 송환된 후, 현지 중공 국가안전에게 붙잡혀 박해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을 재탈출한 후, 그가 중국에서 받은 중공 국가 안전국의 불법 구금, 세뇌, 감시, 교란 등 박해를 폭로하고 강제로 그들에게 협조해 거짓 뉴스를 만든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한 큰 호텔에 납치돼 갔습니다. 4 명이 번갈아 그를 심문하고 한국 파룬궁수련생들의 정황을 물었으며, 강제 세뇌시키고 집 전화를 도청했고, 그에게 한국에 전화해 한국 파룬궁수련생에게 그가 잡히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에게 강제로 '한중동포신문' 인터뷰를 받게 하고, 가짜 뉴스를 조작해 대외에 그가 중국에서 아주 잘 지내며 매우 자유롭도록 보여주게 했습니다. [8] (전문 첨부 파일 1 참고)

한국 법무부가 오기룡 씨의 난민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그가 중국에 돌아간 후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기룡 씨는 “나는 중공 국가 안전국의 담화에서 그들이 국외 파룬궁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음을 알게 됐다. 당신이 활동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중국에 돌아간 후 박해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9]

현재 오기룡 씨는 재탈출해 이미 유엔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기룡 씨 송환에 이어 2009 년 7 월 28 일 파룬궁 수련생 2 명이 두 번째로 송환됐으며, 2010 년 1 월 29 일 파룬궁 수련생 윤향자 씨도 송환됐습니다. 윤 씨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송환된 파룬궁 수련생입니다. 윤향자 씨도 중공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중국을 재탈출, 유엔 난민 신분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2 회에 걸쳐 각각 72 시간씩 심문 받을 당시, 공안이 그에게 잠을 못 자게하고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하며, 특무(스파이) 활동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10] (전문은 첨부파일 2 참고) 국제추적조사에 바친 진술에서 윤 씨는 자신의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중국으로 송환된 후 남편과 결혼) 윤 씨의 한국 비자가 담긴 여권이 경찰에 압수돼 출국 할 수도, 남편과 만날 수도 없게 되자, 윤 씨는 제 3 국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1 년 7 월 20 일까지 2 년 사이 한국 법무부는 6 차례에 걸쳐 모두 10 명의 중국 국적 파룬궁 난민 신청자를 송환했으며, 그 중 중국동포가 5 명입니다. 2013 년 11 월까지 여전히 파룬궁수련생 56 명이 난민 인정을 득하지 못한 채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은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공약>과 유엔 <흑형 금지 공약> 체결국입니다.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공약> 제 33 조 제 1 항에는 “모든 체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난민을 쫓거나 그 생명 혹은 자유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모종 사회단체에 참여, 혹은 모종 정치 견해 때문에 위협받는 영토 국경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유엔 흑형 금지 공약> 제 3 조 규정에는 “누구든 다른 한 나라에서 흑형 받을 위험이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어느 체결국이든 이 사람을 그 나라로 추방하거나 송환 혹은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2]

1999 년 7 월 이후 파룬궁수련생은 중공의 참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6 년 3 월 이래 세계 각 언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론에서 잇따라 중공이 대량의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로 폭리를 얻는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국제추적조사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조사에서 이 죄악이 존재함을 실증했습니다. [13] 2006년부터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타스(David Matas)와 국회의원 및 아태담당 국무장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나. 한국은 중공의 기만과 거짓 선전을 파룬궁수련생 난민문제의 기본 근거로 삼음

본 조직이 알기로는, 서울 행정법원의 2008년 1월 16일 32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판결문에서 열거한 파룬궁 난민 심리 근거는, 주중 한국대사관이 제공한 ‘파룬궁에 관한 조사 보고’(2005. 4. 5)입니다. 이 조사 보고 내용은 파룬궁에 관한 중공의 부정적인 선전 일색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파룬궁에 관한 조사 보고를 2005년 4월 5일 완성했습니다. 그 해 5월 초 법무부는 25명의 파룬궁 난민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중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2002년에 난민 신청을 제출했고, 기타 21명은 2004년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보고’가 파룬궁수련생 난민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보고 내용은 사실과 상반된 것입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1.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사보고’는 파룬궁 활동에 ‘독극물 투입’, ‘살인’, ‘분신자살’ 등 극단적인 사건이 늘 발생한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중공이 파룬궁 수련단체를 모함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예: 중공이 선전한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

2001년 1월 23일 5명이 텐안먼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신화사는 즉시 ‘분신 자살자’는 파룬궁 수련생이라 선포했습니다. 중공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룬궁에 대한 모욕, 비방과 폭력적인 박해를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국제추적조사는 2003년 4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4편의 조사보고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당사자의 여러 장소에서의 음성 감정, 지수이탄(積水潭)병원 의료인에 관한 조사, 여러 언론매체 보도 간불일 치점 분석 등 여러 측면에서 텐안먼광장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 고위 당국이 참여·획책한 음모임을 밝혔습니다. [14]

예: 중공이 죄를 뒤집어씌운 ‘저장 독극물 투입 사건’

2003년 6월 26일. 저장성 원저우시 창난현 룡강진에서 걸식자 독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신화사와 중앙 CCTV는 이 사건이 파룬궁과 관계된다고 천명하면서. 범죄 용의자-천푸자오를 파룬궁 분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국제추적조사는 조사를 거쳐 천푸자오가 간헐성 정신병 환자라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 ‘610 사무실’. 공안부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파룬궁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씌워 대중의 판단을 흐림으로써, 진일보로 박해하려는 목적입니다. [15]

### 2. 세뇌 전향

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사보고’에는 중공이 수련자에 취한 태도를 ‘교육’과 ‘구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사실 신앙에 대한 박해입니다. 소위 ‘교육’은 ‘전향’을 통해 파룬궁수련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생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단체 멸절이 목적입니다. 전향은 중공 정부 측의 용어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는 중공의 정신 통제와 박해의 전용 수단입니다. 파룬궁수련생에 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무수한 ‘세뇌반’을 꾸렸습니다. 이런 ‘세뇌반’은 여러 명칭을 씁니다. 예를 들면 법제교육센터, 법제교육학습반, 법제교육학교, 교육전향센터, 애심센터 등입니다. 또 많은 파룬궁수련생을 교도소에 구금하고 이들에게 혹형 고문을 가해 그들을 강제 전향시켰습니다. 치사 불구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16]

### 3. 파룬궁을 비방하는 전문직 허위 민간 조직

주중 한국대사관 ‘조사보고’에는 2011년 11월 13일에 성립된 ‘중국 반사교협회’가 소위 ‘반사교’ 작용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추적조사는 조사를 거쳐 중국 ‘반사교협회’가 종교 혹은 과학기술자 신분을 가진 당정 고위관리 및 민간단체 명의로 구성된 정부 조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협회의 모든 활동은 모두 정부 및 정부 매체가 참여해 진행한 것입니다. 그 구성원은 종교 혹은 과학기술 신분으로 국내외 국제사회에 중공 당국이 파룬궁을 진압한 이유를 발표·해석하고, 중공 당국에 파룬궁에 대한 진압 조치를 건의하며, 반 파룬궁 이론을 만들고, 파룬궁수련생 전향을 비롯한 각종 박해 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17]

## 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박해, 한국에까지 뻗침

### 1. 난민신청한 파룬궁수련생이 비밀리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됨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리창춘 방한 3개월 후인 2009년 7월 1일, 한국 법무부가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송환한 일부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향자 씨는 국제추적조사에 “2010년 1월 29일 11~12시, 점심을 먹을 때, 한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주: 그녀는 당시 한국화성보호소에 있었음) 저에게 빨리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더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서울로 가라고 했습니다. (서울 출입국) 저는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저의 일에 기뻐하면서 제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탈의실로 데리고 가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들은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서명을 해야합니까?”라고 물으니 그들은 “서명하세요.”라고 했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다하자 그들은 “당신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은 어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남몰래 보낼 것이니, 당신은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저를 인천 부두에 보내면서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전체 과정은 다 저를 속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기룡 씨는 한국 법무부가 첫 번째로 중국에 송환한 사람입니다. 그는 국제추적조사에 그가 송환된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오전, 그들은 출근해 얼마 되지 않아 우리를 관리하던 보안이 저를 불러 (당시 그는 한국 화성보호소에 있었음) 저를 책임진 반장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반장은 저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장은 “당신이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당신을 직접 중국 공안에게 보낼 것이다. 오늘 당신은 꼭 가야 한다. 당신은 스스로 갈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직접 중국 공안에 보내게 할 것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서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려 하지 않자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그들은 두 사람을 시켜 저의 팔을 끼고 강제로 저를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공항에 보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제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제가 수갑을 찬 것을 볼까 두려워하며 그 중 한 사람이 옷으로 수갑을 덮었습니다. 제가 검색대를 통과하고서야 그들은 수갑을 풀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파룬궁수련생이 송환된 두 수련생과 전화 통화를 해 그들이 어떻게 강제로 송환됐는지를 알고 국제추적조사에 통화 녹음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한국화성보호소에 있었는데 불려나갈 때 법무부 직원 20 여 명과 경찰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의 명령으로 당일 반드시 중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며, 다른 두 수련생도 함께 송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재촉하면서 머뭇거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강제로 차에 올랐을 때 다른 두 명의 수련생은 이미 차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부두에 보내졌고 직접 선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파룬궁 책 등은 검색대를 통과할 때 발각될까 두려워, 한국에 남겨두었습니다. (상세 내용 첨부파일 3 참고)

왕 여사도 강제로 송환된 사람입니다. 그녀(왕여사)도 당시 한국화성보호소에서 불려나갈 때 두 사람이 그녀의 팔을 끼고 입구의 탈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꼭 차 있었는데 보호소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송 중이기에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녀에게 쓸모없다면서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그녀에게 준 옷을 입고 차에 끌려갔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항공편이 없고 배편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베이(주: 그녀의 집은 동베이에 있음)에 가면 박해 받을 수 있기에 동베이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남방으로 가는 배표를 끊었다고 말하고 그녀를 어떤 방에 가둬 넣고 집에 전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동베이로 가는 배였습니다. (상세 내용 첨부파일 3 참고)

## 2. 난민 인정 못 받은 파룬궁수련생, 시시각각 체포와 구금, 송환위험까지 처함

중국 국적인 중국동포 파룬궁수련생 김정철 씨는 2008년 1월 한국에 온 후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반대 활동에 많이 참여했으며, 한국 파룬궁수련생이 조직한 대형 군악대 '천국악단' 지휘자 겸 색소폰 연주자였습니다. 또 파룬궁수련생이 찍은 영화 <윤희>의 남자 주인공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그는 난민 신청을 제출했는데 법무부는 기각했습니다. 그가 주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공의 주목을 받지 않고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그가 한국 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제출한 상소는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2011년 9월 6일 한국 법무부 직원 2명과 경찰 2명이 그의 집 현관문을 따고 강제로 그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는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됐고 다음날 화성보호소에 구금됐습니다.

한국정부는 국제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2011년 12월 6일 김정철 씨가 제출한 난민 재신청을 접수했지만 2012년 7월 30일 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재차 이의신청을 제출해 2013년 5월 2일, 법무부는 그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국외의 지속적인 목소리에 끝내 그에게 인도적인 체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해 7월 3일 그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파룬궁수련생이 아직 56명 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붙잡히고, 구금되고, 심지어 송환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3. 국제사회가 중공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한 것을 규탄, 한국이 유엔 공약을 이행할 것을 호소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2009년 7월 한국정부가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미 정치요인과 국제 언론은 중국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어 파룬궁수련생을 중국으로 송환하게 한 행위를 규탄했으며 이명박 정부에 한국정부가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공약>과 <유엔 흑형 금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송환을 중지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인도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8월 14일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미국연방 하원의원은 국회의원 23명과연명으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18](영문 서신 첨부파일 4 참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Edward McMillan-Scott) 유럽 의회 부위원장도 한국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썼습니다. (영문 서신 첨부파일 5 참고) 프랑스 통신사는 2011년 9월 11일 <파룬궁수련생, 한국에서 송환에 직면>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19]

김정철 씨가 한국 화성보호소에 감금돼 송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로스 레티넨(Ileana Ros-Lehtinen)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회에서 의결한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반대하는 605호 결의안 부분 및 서신 한 부'를 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레티넨 이사장은, 한국 외교부 장관이 2011년 10월 5일 공개적으로, 중국이 '중국에 구류됐던 35명의 북한 탈북자 난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호소한 사실과, 한국정부가 '10명의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송환한 사실'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정부가 흑형 고문이 계속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중국에 파룬궁수련생을 송환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20]

해외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은 2011년 9월 20일 '한국 실시간' [21]과 '중국 실시간 뉴스'에 김정철이 송환될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사법부 대표는 그들은 김정철의 안건을 토론할 수 없다고 한 말'을 내비쳤습니다.[22]

### 맺는말

중국공산당은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빌어, 한·중 고위층의 상호 방문 즈음에 파룬궁난민신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처리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파룬궁수련생의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이 기각 당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간섭 하에 한국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을 체포·수감했으며, 수련생들을 강제적으로 중국에 돌려보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가 한국에까지 연장됐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중국으로 돌려보낸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공산당의 엄중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유엔 국제조약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며, 중국공산당의 반인륜 범죄가 한국에까지 확산되게 했습니다.

###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전화: 1-347-448-5790 팩스: 1-347-402-1444 ;

우편주소: P.O. Box 84, New York, NY 10116

웹 사이트 주소: <http://www.upholdjustice.org/>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참고자료 :

- [1]. 2006년 3월 18일 '중신왕(中新網)' - '공안부 부장 저우융강(周永康), 한국 법무부 장관과 회담 진행'
- [2]. 2006년 3월 18일 '중신왕(中新網)' - '공안부 부장 저우융강(周永康), 한국 법무부 장관과 회담 진행'
- [3]. 런민왕(人民網)에서 전제한 2002년 12월 9일 '인민 공안보' 문장 - '저우융강(周永康)이 공안부 각국장급 기관 책임자회의에서 한 발언'
- [4]. '중앙정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신화사(新華社)는 2009년 4월 6일 "리창춘(李長春)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 [5]. 2009년 4월 6일 '소호(搜狐)뉴스' - '리창춘(李長春), 한승수 한국 국무총리 회견' ↓
- [6]. 2009년 4월 7일 '신화왕(新華網)' - '리창춘(李長春), 한중 우호단체 책임자 회견'
- [7]. 2006년 4월 8일 '보신왕(博訊網)' - 정치국에서 '5대 적대 세력'을 명확히 하다
- [8]. 2013년 2월 13일 '밍후이왕(明慧網)' 문장 - '내가 송환된 후 중국공산당이 나에게 가한 박해와 거짓 선전' 영문링크 :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3/3/3/138354.html>
- [9]. 2013년 2월 13일 '밍후이왕(明慧網)' - '내가 송환된 후 중국공산당이 나에게 가한 박해와 거짓 선전' 영문링크 :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3/3/3/138354.html>
- [10]. 2013년 2월 11일 '밍후이왕(明慧網)' - "내가 송환된 후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받은 사실" 영문링크: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3/3/4/138364.html>
- [11]. '난민 지위에 관한 공약' <http://www.un.org/chinese/hr/issue/docs/82.PD> F
- [12]. '유엔 흑형금지 공약' <http://www.un.org/chinese/hr/issue/docs/39.PDF>
- [13]. '국제추적조사' -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국제추적조사의 증거 특집' <http://www.zhuichaguoji.org/node/35848>
- [14]. 2011년 1월 20일 "국제추적조사" - "텐안먼 분신자살" 거짓 안건 10주년 회고에 관한 국제추적조사 특집 <https://www.zhuichaguoji.org/node/12180>
- [15]. 2004년 1월 15일 '국제추적조사' - '저장(浙江) 결식자 독살안건'에 관한 국제추적조사의 조사보고 <http://www.zhuichaguoji.org/node/66>
- [16]. 2004년 4월 28일 '국제추적조사' - 파룬궁 수련단체를 전향시키려고 정신과 육체적으로 집단 멸절을 실행한 조사보고 <http://www.zhuichaguoji.org/node/123>
- [17]. 2004년 4월 5일 '국제추적조사' - 중국 '반사교협회' 비서장 왕유생(王渝生)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조사보고 영문링크 : <http://www.upholdjustice.org/node/228>
- [18]. 2009년 9월 6일 '대기원(大紀元)'문장 중문 번역 <http://www.epochtimes.com/gb/9/9/6/n2648288.htm>
- [19]. AFP : 2011년 9월 16일 Falungong members in S. Korea "facerepatriation" <http://sg.finance.yahoo.com/news/Falungong-members-S-Korea-afpsg-2760865651.html>
- [20]. 2011년 10월 23일 '대기원' 편지 중문 번역 <http://www.epochtimes.com/b5/11/10/23/n3409046.htm>
- [21]. '월스트리트저널' Korea Real Time 에서 2011년 9월 20일에 보도한 "Protests Grow Over Deportations of Falun Gong Practitioners",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1/09/20/protests-grow-over-deportations-of-falun-gong-practitioners>

[22]. '월스트리트저널' China Real Time Report 에서 2011 년 9 월 20 일에 보도한 'South Korea Protests Over Falun Gong Deportations'

<http://blogs.wsj.com/chinarealtime/2011/09/20/south-korea-protests-over-falun-gong-deportations>

첨부파일 1 (오기룡 진술) :

한국에서 강제 송환된 나에게 중공이 가한 박해와 거짓 선전

나는 오기룡이라 하며 파룬궁 수련생이다. 나는 2009 년 7 월 1 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귀국 후 나는 중국공산당(중공)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 역주)로 부터 불법 구금, 세뇌, 감시, 소란 등 박해를 당했고 게다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데 협조하도록 강요당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송환되어 귀국한 후에 일어난 진실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히려 한다.

나는 한국체류 기간 중이던 2004 년부터 파룬궁을 알기 시작했고 수련을 시작했다. 2007 년 3 월 14 일부터 2009 년 7 월 1 일까지 나는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됐다. 이 기간에 나는 난민신청,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는데, 법원은 내가 귀국해도 박해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나는 2009 년 7 월 1 일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당했다.

송환된 후 중공 국가안전부는 즉시 나를 찾아냈고 아울러 나에게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공안국에서 직접 당신을 잡으려 했지만 당신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이므로 우리가 당신을 책임지게 됐다." 사실 당시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정신적 박해를 하기로 방식을 변경한 것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교란했는데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나를 괴롭혔다. 내가 일하는 곳이나 집까지 찾아와 나와 가족에게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또 우리 집 전화를 감시했고 항상 나를 세뇌시키려 했다.

한 번은 중공 국가안전부가 나를 한 숙소에 감금하고는 나에게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을 모욕하는 문장을 보도록 협박했으나 나는 보지 않고 문장을 밀쳐 버렸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시 내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보라고 협박했다. 이번만 아니라 네 명이 번갈아 가며 나를 심문하고 지치게 하는 방식으로 한 시각도 내 대뇌를 쉬지 못하게 했으며 네 명이 번갈아 나를 세뇌시켰다. 이후에 나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핑계를 댔으나 그들은 화장실에 갈 때까지도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촬영했다. 그 하루 동안 집에서는 계속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도 확실히 이런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후에 610(중공이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만든 초법적 불법기구)의 한 우두머리는 나에게 고향을 질렀다. "오기룡, 너 잔꾀 부리지마! 넌 도망치지 못해!"(이후에야 나는 내가 이미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됐음을 알게 됐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내 머리 속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리고 열이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손으로 만져보니 피였다. 이때부터 내 기억력은 뚜렷이 감퇴됐고 청력도 떨어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졌다. 어떤 때는 한 마디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하곤 했다. 당시 내가 감금되어 세뇌를 당했을 때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나는 그들이 무슨 그 속에 무슨 약을 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후에 그들이 또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 일을 물었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들은 또 나에게 한국에서 파룬궁을 배운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누구를 알고, 주요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 지 모두 쓰라고 했다. 또 한국에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게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라는 전화를 하라고 으박질렀고, 게다가 항상 가족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도록 했다. 또 나와 아내를 위협해 사진을 찍게 하고는 한국 정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나를 속였다.

이후에 나는 이 사진을 이용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조작해 인터넷에 올렸음을 알게 됐다. 즉, 내 동료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내가 강제송환 당했다는 소식이 자기가 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그 네티즌은 회사의 주선으로 참석한 교외 소풍에서 우리 부부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나중에 그 사진과 함께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했다. 전반 과정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최대 허점은 바로 그 네티즌이 쓴 글 중에 있는 이 한 단락이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두 번이나 중국에 돌아간 적이 있는데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았나요?’라고 물었다.”(관련글이 등재된사이트

[www.kaiwind.com/hwbbs/zsfy/201005/t110465.htm](http://www.kaiwind.com/hwbbs/zsfy/201005/t110465.htm)) 사실 나는 2002 년에 한국에 간 후 2009 년까지 한 번도 중국에 돌아간 적이 없었다.

아마 그들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했는지 중공 국가안전부는 한 방면으로는 내가 이미 중공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감금되어 세뇌당하고 있다는 어떠한 소식도 차단했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또 거짓 뉴스를 조작해 내가 중국에서 이미 잘 살고 있으며 아주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중공 국가안전부는 수차례 나에게 한국 기자를 찾아가 만나라고 협박했다. 처음에는 한국방송(KBS)에서 나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무슨 ‘한중동포신문’이란 곳이 됐다. 그들은 내가 취재 받으러 가기 전에 내 아이를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했다. 바로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에게 “당신이 기자와 한 어떠한 한 마디 말도 그들은 모두 갖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받으러 갈 때 그들은 차로 나를 압송해 기자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내려놓고는 혼자 걸어가라고 했다. 또 나에게 감정을 조금 자연스럽게 잘 조절하라고 했다.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나는 ‘한중동포신문’ 기자의 취재를 받았는데 사실 보도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여기에서 나는 기자에게 묻고 싶다. 내 핸드폰 번호를 당신은 어떻게 알았는가? 당신은 아마 중국 정부가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할텐데 그렇다면 정부는 또 어떻게 알았는가? 사실 그 때 나는 아예 핸드폰이 없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바로 중공 국가안전부가 나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반드시 내 아내 핸드폰을 수시로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이 바로 명백한 진실이다.

사실 나는 중공 국가안전부의 심문과정에서 그들이 국외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모두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이 오직 활동에 참가한 사람이기만 하면 귀국 후 곧바로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귀국 후 줄곧 중공 국가안전부의 감시, 소란, 감금과 세뇌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나는 아예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나는 다행히 국외로 탈출하게 됐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한 상황을 말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국 정부에 호소한다. 인도주의에 입각해 박해가 중지되기 전까지 파룬궁수련자를 보호해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ttp://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주고 파룬궁수련자를 강제송환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다시 발생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한문링크: [http://kr.minghui.org/bbs/board.php?bo\\_table=pohai&wr\\_id=403](http://kr.minghui.org/bbs/board.php?bo_table=pohai&wr_id=403)

영문링크: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3/3/3/138354.html>

(What Really Happened after I Was Deported from South Korea to China)

첨부파일 2 (윤향자 진술) :

### 내가 한국에서 강제송환 당한 후 중공에 박해당한 사실

나는 윤향자라고 하며, 2010년 1월 30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송환 당한 중국 파룬궁수련생이다. 귀국 후 나는 중국공산당 국가안전(國安) 특무(스파이)의 불법 가택수색, 감금, 세뇌 등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중공(중국공산당)은 줄곧 외부에 소식을 감추면서 국제사회에 송환된 파룬궁수련생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속이려 했다. 나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중국을 벗어났고, 여기에서 내가 겪은 사실을 공개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려 한다.

나는 1996년 7월 이웃의 소개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당시 신체 상황이 좋지 않아 난소 종양, 경추염, 류머티스 관절염, 불면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 파룬궁 수련을 한지 한 달 후 건강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어 각종 질병이 전부 사라졌다.

1999년 3월, 나는 상용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게 됐고 그 해 7월 20일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다. 나는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한국에 남기로 하고 이후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어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2010년 1월 30일, 나는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송환 되어 귀국하게 되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나는 감히 집에 가지 못하고 직접 칭다오(靑島)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 그 때 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를 다 잃어버렸으며 한 달 후 나는 반드시 고향 연길로 돌아가 신분증과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는 나에게 부득불 또 다시 마음을 괴롭히는 옛 일과 고통스런 경험에 직면하도록 했다. 그래서 나는 신분증과 여권을 재발급 받는 동시에 이름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이름을 고치고 외지 친척 집에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공안은 기어코 나를 찾아냈다. 2010년 8월 25일, 칭다오 공안에서 갑자기 우리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하고 '전법륜(轉法輪-파룬궁 수련지침서)'과 MP3, 녹음테이프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는 심문하겠다고 나서 나를 끌고 갔다. 이 때 연길 경찰도 나를 붙잡기 위해 특별히 칭다오에 왔고 72시간 밤낮없이 나를 심문했으며 내 신분증을 몰수했다. 연길시 안전국에서는 내가 칭다오에 있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연길로 돌아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아울러 일체 문제는 내 태도에 따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후 연길 경찰은 칭다오를 떠났다.

2010년 나는 핍박으로 연길로 돌아왔고 연길에서 또 72시간 심문을 당했다. 동시에 이미 세뇌로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수련생을 세뇌시키는 사오(邪悟)한 사람을 보내 나를 세뇌시켰다. 이 사오한 자는 중공의 악독한 거짓말에 세뇌당한 후 나를 아주 경계하고 냉담하게 대했으며 반복적으로 파룬궁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이론을 왜곡시켜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입했다. 나는 72 시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두뇌가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서 쓰고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 가기 전에 자신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야 떠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내 전화를 도청했다. 나는 이때 나에게 대한 중공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더욱 인식하게 됐다.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나는 한국 파룬궁수련생 상황에 대해 중공 공안에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나에게 한국의 여러 협조인과 여전히 한국에 있는 몇몇 연길 출신 파룬궁 수련생의 이름을 물으면서 내가 그들을 아느냐고 물었고 또 한국 천국악단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그 때 나는 사진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가리키라고 했고, 또 난민 소송에 참가한 파룬궁 수련생 명단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법공부팀에도 그들의 특무가 갔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는 또 나에게 파룬궁 수련생 허원종이 신분 문제로 붙잡힌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했다. 왜냐하면 허원종 씨는 내가 송환된 후 붙잡혔기 때문이다.

막 석방되어 집에 돌아온 날에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내 마음을 극히 고통스러웠다. 파룬궁은 내 몸을 건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양심을 어기고 파룬궁을 배반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속으로 절망과 굴욕, 부끄러움을 느꼈다.

한 달 후 나는 계속해서 파룬궁 수련을 하기로 결심했다. 파룬궁은 이미 내 생명의 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방법을 찾아 한 파룬궁수련생의 먼 친척과 연락을 취했고 그녀에게서 파룬궁 서적을 받았다. 또 Minghui에 내 실명으로 엄정성명을 발표해 이전에 당국에게 쓴 수련포기 보증을서 폐기하고 새롭게 수련을 시작하겠다고 성명했다. 뿐만 아니라 친척 집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단체 법공부에 참가했다. 그러나 몇 주 후 의심스러운 인물이 빈번히 친척집을 감시하기에 우리는 단체 법공부 팀을 해산했고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연마했다. 그들이 내내 감시하고 있었기에 두렵고 걱정스러워 과감히 나가서 파룬궁 진상을 알릴 수도 없었다.

2011년 3월 중순, 연길 '610'(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기 위해 만든 비법조직) 사람에게서 면담을 하자는 전화가 왔다. 그들은 한 찻집에서 나와 만나자고 했다. 반시간 정도 말하고 나서 그들은 내가 여전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자신들을 도와 한국 파룬궁수련생 상황을 수집하라는 것이었다. 즉 나에게 특무가 되라는 것이었는데 컴퓨터를 배워 인터넷으로 파룬궁 정보를 수집해 그들에게 발송하라고 했다. 나는 즉시 거절했다. 그들은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내가 이미 해관(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의 출국제한 명단에 있다고 했다. 이후 몇 달이 지났으나 아무 소식도 없자 나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나는 몇 차례 이사를 했지만 이런 공포감을 없애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중국을 벗어날 결심을 하게 됐다.

이상은 내가 한국에서 강제송환을 당한 후의 진실한 경험인데 여기로부터 중공 특무는 해외 파룬궁수련생 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환당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상황 역시 엄밀히 차단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한국 정부와 기타 국가 정부에 더는 중공의 속임수를 당해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송환 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싶다.

한문링크: [http://kr.minghui.org/bbs/board.php?bo\\_table=pohai&wr\\_id=402](http://kr.minghui.org/bbs/board.php?bo_table=pohai&wr_id=402)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영문링크: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3/3/4/138364.html>

(Falun Gong Practitioner Deported from South Korea is Persecuted after Returning to China)

### 첨부파일 3 : 한국정부로부터 비밀리에 강제로 송환된 파룬궁수련생이 직접 겪은 경력

#### 사례 ① 이 씨(여성)의 녹음 기록

이: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불러 나오라 했고(주: 그녀는 당시 화성보호소에 구금 중이었음) 누가 나를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어느 파룬궁수련생이 나를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나갈 땐 오른 쪽으로 꺾어 갔지만 이번에 그들은 나에게 왼쪽으로 꺾어 가라 했습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들의 말대로 갔습니다. 나가 보니 20 여 명 법무부 사람과 경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많고 여자는 적었습니다. 나를 책임진 담당(반장)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여성, 중국어 구사 가능) 그들은 담당에게 오늘 나를 중국으로 보낸다고 말하라 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명령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는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고, 우리 누구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래도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 명령을 집행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 했습니다. 내가 옷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가 잡혔을 때 입은 옷을 꺼내며 “당신은 우리 옷을 입고 가도 됩니다. 당신이 입지 않겠다면 당신 옷을 입어도 됩니다. 당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허 씨와 위 씨도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누구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우리에게 말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는 정부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줄곧 정부 명령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녀는 내 옷이 얇은 것을 보더니 어디에서 가져 왔는지 모르지만 솜옷을 제게 주었습니다. 내가 받으려 하지 않자 그들은 옷을 들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가보니 허 씨와 위 씨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은 우릴 강제로 중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불학회 (사단법인한국파룬따파불학회) 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남몰래 송환하는 것입니다. 1 번 부두인지 2 번 부두인지 모르겠지만, 후문에서 바로 배로 이끌고 선실에 데리고 가서는 우리에게 모든 파룬궁 책과 물건을 남겨 두라면서 허 씨 누나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가지고 가면 세관을 통과할 때 발각될까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은 우리가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를 송환하느냐며,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신들은 중공의 박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당신들을 돌려 보내라고 하기에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송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 개월 전 그들은 우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라면서 여권 / 여행증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미 꾸민 것입니다. 그 여행증은 밖에서 만든 여행증명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갈 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1 개월 전부터 진작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사실 당신들이 스스로 돌아가려 한 것이 아니군요 ?

이 : 아니지요 !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밖에 우리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 우릴 속였습니다 뒤에 내가 나간 후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짐을 챙긴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 사례 ② 왕 씨의 녹음 기록

**질문:** 송환한 과정을 상세히 구술해보세요.

**왕:** 그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 그녀는 당시 화성보호소에 수감 중이었음)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명찰을 주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겠구나 생각하면서 속으로 보호소에서 누가 나를 찾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윤 씨가 불렀는데 왜 오후에 또 부를까? 긴 복도를 꺾어 돌아 나가자 두 사람이 나의 팔을 끼고 밖에 있는 입구의 탈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보호소 사람이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 2 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관리하는 반장은 없었습니다. 가운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나를 송환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아직 소송 중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 소송은 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나보고 앉으라고 하고 한국말을 했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 담당이(나의 담당이 아님) “왕, 오늘 당신은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국에 있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있을 수 없는가? 나는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소송은 소용없다. 전혀 소용없다. 당신은 오늘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당신은 가야 한다. 오늘 반드시 당신을 보낼 것이라면서 나에게 옷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옷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약 1 분 후 그들은 신발, 바지, 셔츠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내가 이걸 입을 수 있느냐? 이걸 입고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느냐? 하고 묻자 그녀는 이걸 다 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것이고 낡은 것이고 간에 다 내 것이 아니기에 입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에게 빨리 바꿔 입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나는 바꿔 입지 않고 거듭 그들에게 이걸 나의 옷이 아니기에 입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한국어로 말했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강제로 보내야 한다는 뜻 같았습니다. 나는 빨리라는 말과 바꿔 입어야 한다는 말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버텨도 무슨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강박해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바꿔 입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태껏 한국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소송 중에 있는 사람도 송환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당신들은 나를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강박합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신용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보면서 다들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를 차로 끌고 갔습니다.

**질문:** 당시 어디로 보내는지 몰랐습니까?

**왕:** 모르지요. 그 때 아주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앞에 송환된 몇 사람도 다 이렇게 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2 년 넘게 있으면서 소송 중에 있어도 여전히 송환하는군요 어제 부회장과 조 씨가 나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보호소에 주었는데 이튿날 나를 송환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서류를 작성하라 했지만 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당시 그들은 당신을 중국 어디로 보낸다고 알려주었습니까?

**왕:**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팔을 끼고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 때 시간이 오후였기에 배편 밖에 없었습니다. 항공편은 없었습니다.

**질문:** 그들이 배표를 끊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 당신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왕:** 차에서 나는 동북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방으로 가는 표를 예약했다고 하고 나를 방에 가두어 넣었습니다. 내가 전화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조급했지만 나를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떠나려 할 때에야 한 사람이 나를 배에 데리고 갔는데 나는 자리가 없었기에 창고로 데리고 가면서 사람을 파견하여 저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잠시 여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범죄자입니까? 나에게 전화를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전화가 없습니다. 당신이 전화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시 관리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상대방은 이는 관례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서 상급의 명령이니 저더러 양해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키지 않으면 목이 잘린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결국 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왕:** 동북으로 갔습니다.

**질문:** 그럼 그들은 당신을 속인 것 아닙니까!

**왕:** 저를 속인 거죠. 나는 그때 그들에게 동북으로 갈 수 없고 남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동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방으로 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배는 남방으로 가는 배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이 배에 태우면 당신은 이 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동북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당신들은 나를 속이고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첨부파일 4 : 미국 국회의원 23 명이 이명박 대통령에 올린 연명 서신**

Letter from 23 US Congress Members to President Lee Myung Bak

August 14, 2009

His Excellency President Lee Myung-bak

Office of the President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110-820)

PER Fax to: Office of the President, ROK: 82-2-770-7029

Amb. Duck-soo, Republic of Korea Embassy, U.S.: 202-797-0595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Dear Mr. President,

We wish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plight of 33 Chinese Falun Gong practitioners who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news reports, the Chinese government is applying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eport these Falun Gong practitioners to China, and we have been informed that several of them have already been deported.

As Member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we are well aware of the Chinese government's harsh persecution of Falun Gong practitione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anned Falun Gong and it implements the ban through an extralegal security force, the "6-10 Office", established not by the Chinese government but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6-10 Office", and government forces implement the ban by means of the arbitrary detention, beating, torture and "transformation through reeducation" of Falun Gong practitioners – although practitioners seek only to exercise internationally-recognized fundamental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Falun Gong practitioners are among the most brutally persecuted groups in the world today. The total number of practitioners who have died or who have been killed while in Chinese government custody likely exceeds the 3,000 cases we understand to be well-documented. Cases of torture involving Falun Gong practitioners account for 66 per cent of all cases of torture in China, according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There reportedly are over one hundred thousand Falun Gong practitioners, both men and women, among China's total labor camp population.

In the past fifty years, few countries have made such rapid progress in respect for human rights as has South Korea, both as a government and as a society. It is with this in mind that we urge your government not to deport Falun Gong practitioners to China, but to find an appropriate way, with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orture and refugees ratified by South Korea, to permit Chinese Falun Gong practitioners to remain in South Korea.

For your convenience we include a list of Falun Gong practitioners currently in danger of deportation on Chin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Sincerely,

(23 Signatures of Members of Congress)

첨부파일 5 : 유럽 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Edward McMillian-Scott)이 이명박



**Mail address:**  
**P. O. Box 84**  
New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대통령에게 쓴 서신**

Letter of Edward McMillian-Scott To President Lee Myung-bak  
His Excellency President Lee Myung-bak  
Office of the President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110-820)  
FAX : Office of the President, ROK: +82-2-770-7029  
TEL : +82-2-770-7028  
Brussels, 16 September 2011

Dear President,

**REPATRIATION OF CHINESE FALUN GONG ASYLUM SEEK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 am writing in my capacity as Vice-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responsibl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o bring your attention to the plight of Chinese Falun Gong practitioners seeking asylum in South Korea. In the past several years, ten of these asylum seekers have been repatriated, putting their lives in grave danger.

As I am sure you are aware, since 1999 practitioners of Falun Gong – a Buddha-school peaceful way of life – have been terribly persecuted, imprisoned and abused. I have met many practitioners, both in Europe and during my last visit to Beijing and Asia in 2006. In Beijing the mere fact that I had met these practitioners resulted in the majority of them 'disappearing' shortly afterwards and being taken to prison or 're-education through labour' camps.

Furthermore, reports such as 'Bloody Harvest' (1) show that, due to their healthier lifestyle of no alcohol and no smoking, "since 1999 have put to death a large but unknown number of Falun Gong prisoners of conscience. Their vital organs, including kidneys, livers, corneas and hearts, were seized involuntarily for sale at high prices."

I hope this goes some way to demonstrate that the brutal Chinese regime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high- and low-profile Falun Gong practitioners; to them, any practitioner is a threat and a criminal, and will therefore be imprisoned and likely tortured, no matter if they are a key member or not, because the purpose of the persecution is to destroy their spiritual beliefs

Despite the terrible situation of practitioners in China, of the approximately 100 who have applied for asylum in South Korea almost all have been rejected. This appears to go against Article 3 of the proposed 2009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which states:

**Mail address:**  
**P. O. Box 84**  
New York, NY  
USA 10116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追查迫害法轮功国际组织**

**hwww.upholdjustice.org**  
**Tel: 1-347-448-5790**  
**Fax: 1-347-402-1444**

Article 3. (Non-Refoulement)

Refugees and other persons shall not be repatriated to the following countries:

1. a country where a person's life or freedom could be threaten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2. a country where a person could be subjected to torture, inhumane treatment, punishment or other similar treatment articulated by the conventions or treati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3. a country where a person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repatriated to a third country under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Clause 1 and 2. (2)

South Korea has made huge development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over the last 50 years and sets a strong example to its neighbouring countries, such as by signing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refugees and torture. It is in light of these factors that I urge you to reconsider your country's current position on granting asylum to Falun Gong practitioners –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nding – and to ensure that they are not deported to China where they are most likely to face persecution, imprisonment and torture.

Yours sincerely,

1. Bloody Harvest: Revised Report into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of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 by David Matas, Esq. and Hon. David Kilgour, Esq., 31 January 2007, <http://organharvestinvestigation.net/>
2. UNHCR's Comments on the Republic of Korea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5 June 2009, pp. 3-4.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rwmain/opendocpdf.pdf?reldoc=y&docid=4a8d589c2>